

한국 축산물 위생처리협회

협회지 제 51-1호 2003년 2월 13일(목)

제목1: 내일-2003년도 정기총회 개최

2003년도 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의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1, 일시 : 2003년 2월 14일(금요일 12시)
- 2, 장소 : 축산물 등급판정소 본소내 회의실
(경기도 군포시 당동 424-6)
- 3, 의제 : ① 도축수수료 현실화 방안의 건
② 등급판정수수료징수대행료를 협회비로 대체의 건
③ 가입비, 월회비, 용역비 징수 및 조정의 건
④ 2002년도 수입, 지출 결산승인의 건
⑤ 2003년도 사업계획 및 수입, 지출예산(안)승인의 건
⑥기타 현안

제목2: 도축장 구조조정 통해 효율성 높여야

-가동률 낮고 경영수지 악화-

전국 도축장 수를 줄여야 한다는 논문이 발표됐다.

2003년도 2월 건국대 박사학위 졸업논문으로 제출, 통과한 '도축장 운영실태와 경영효율성 분석'(김기현) 논문에 따르면 각 도축장은 도축실적에 비해 도축처리능력이 너무 커 도축시설을 감축하는 동시에 자체 구조조정을 통해 인건비를 감축해야만 현재의 산출수준에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축장...'논문은 또 2001년 기준 113개소 도축장 가동율은 소 22.7%, 돼지 49%에 불과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 인증을 획득한 도축장도 작년 8월 현재 28개소로 25.4%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도축장의 HACCP 인증 획득률이 낮은 것은 이를 위한 투자비가 소규모 9억2천만원, 대규모 14억8천만원으로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논문은 이어 도축장의 매출액 가운데 경상이익율이 타산업에 비해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순이익율은 열위로 분석됐는데 이는 이차비용 부담 가중과 고정자산 과다 투자로 분석됐다.

발체:양돈타임스

제목3: 스미토모사, 美 일괄생산·식육처리된 쇠고기판매

일본의 스미토모상사는 미국에서 우량종 교배에서부터 비육, 식육처리까지 끝낸 고품질 쇠고기의 일본 국내판매를 개시한다.

연간 판매목표는 2천톤이며 BSE 등으로 식품의 안전에 관심이 높은 최근의 흐름에 맞춰 일괄생산에 따라 경로조사체제를 강조하는 외식기업과 양판점에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스미모토가 공급하게되는 미국산 쇠고기는 크리크-스톤사(미국 콜로라도주 소재)가 캔터키주에 위치한 자사의 목장에서 생산하는 블랙 앵거스종으로 식감과 맛이 일본산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스미모토 상사는 크리크-스톤사와 2001년 대일 수출을 위해 포관제휴를 했으며 이에 앞서 크리크-스톤사는 최신의 식육처리장을 매수하고 처리단계의 모든 이력을 기록·확인할 수 있는 체재를 구축했다.

향후 크리크-스톤사는 5월까지 일본의 외식 기업이 요구하는 규격에 맞게 처리장을 보수하여 대일 수출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일본내 판매는 스미토모 자회사인 프레쉬미트(동경)가 담당하고, 가격은 일본산과 일반 수입산의 중간대로 책정된다.

발체:오사카농업무역관

한국 축산물 위생 처리 협회

협회지 제 51-2호 2003년 2월 13일(목)

제목4: 국내산 돼지고기 몽골수출 확정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는 국내산 돼지고기의 몽골로의 수출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협회는 제주도 등지에서 수출이 재개되는 듯 알려지고 있으나 본격적인 수출은 3월 초부터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밝히고, 몽고정부가 수출무역회사로 지정한 업체와 협의하여 2월 18일 부산경남양돈조합 육가공장에서 작업한 등심, 후지 20톤을 샘플로 우선 수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몽고가 요구하는 스펙은 등심은 지방두께가 20mm이상, 후지는 지방두께 10mm이상이다. 한편 협회는 현재 국내 상황이 비선호 부위(수출부위)인 등심, 후지의 국내 재고량 증가로 도축가공업체의 재고부담이 가중되고 이에 따라 돼지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되도록 많은 물량이 수출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부산에서 중국 천진까지는 배로 수송하며, 천진에서 몽고 울란바트로까지는 트럭으로 수송(10~12일 소요)하기 때문에 운송비가 많이 소요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발췌: 한국정보문화

제목5: 올 축산정책 환경·안전·위생에 초점

올해 축산정책은 경종농가와 축산농가를 하나로 엮어 친환경 축산을 정립, 청정축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환경·안전·위생'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달중 농림부 축산국장은 지난 7일 한국축산경영학회가 주최한 '새정부에 바라는 축산정책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히고 생산자중심에서 소비자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고품질 안전축산물의 욕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내가 생산한 축산물을 팔아줄 소비자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순서"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국장은 이를 위해 경종농가와 축산농가, 축산농가와 소비자간의 긴밀한 연결고리를 형성하여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또 가축질병 방역 태스크포스팀을 가동해 외래질병 차단은 물론 상재하고 있는 악성질병을 퇴치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생산·소비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발췌: 농수축산신문

제목6: 함평군 고품질 돼지 생산 총력

-함평군이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는 돼지고기 생산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10일 군에 따르면 위기에 처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와 국민 건강증진, 돈육생산산업 발전을 위해, 관내 양돈·양축 농가를 대상으로 '무(無) 항생제 돼지 사육 교육'을 실시, 경쟁력 있는 돼지를 생산할 계획이다.

무항생제 돼지 생산은 농장주변 환경 개선과 정비공법으로 질병을 원초적으로 차단하는 것과 벌침 시술에 의해 면역력과 수태율을 높여주는 시스템을 말한다.

또 면역 증강제를 돼지에게 먹임으로써 질병의 저항력을 높이고 발육을 강화시켜 항생제를 쓰지 않고도 돼지사육이 가능케 하는 한편, 미생물에 의한 분뇨 처리로 악취를 제거하는 효과도 얻을수 있다.

군 관계자는 "농가에 무항생제 돼지 사육을 널리 보급하고,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친환경 고품질 돈육 생산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발췌:무등일보